

인원정보자료실	
인	Ic1.2.2
등록일	
	C 6-4
	28

북경세계여성대회 참가 보고대회

여성장애인분과 '빛장을 여는 사람들'

137-061 서울시 서초구 방배1동 922-16 진일빌딩 2층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화 (02)521-5364 전송 (02)584-7701

값 : 3천원

북경세계여성대회참가 보고대회 자료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출판부에서 발행

일시 : 1995. 11. 28 오후 2시~5시

장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강당

주최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성장애인분과 '빛장을 여는 사람들'

인원정보자료실
Ic1.2.2

북경세계여성대회 참가 보고대회

장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강당

주최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성장애인분과 '빛장을 여는 사람들'

차례

- 인사말
- 제4회 세계여성회의 비정부 포럼 참가기..... 11
- 부록 23
 - 부록 1. 세계여성회의
 - 부록 2. 스웨덴의 장애인 정책
 - 부록 3.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성장애인 기관
 - 부록 4. 쉬아(SHIA)와 유엔의 여성장애인 보고서
 - 부록 5. 여성장애인의 권리
 - 부록 6. '빛장을 여는 사람들' 활동보고

오늘 이 자리는 우리의 함성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여성이 세상의 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반에 반도 못 미치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지구상의 여성 중에서 거의 대다수의 여성이 동등한 참여와 평등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으며, 더구나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마저 제한 당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성은 그 양상이 매우 심각하며,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거의 실태나 현황조차도 파악되지 않을 정도로 관심 밖의 영역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아·태 지역 개발도상국의 여성장애인의 수는 그 나라 전체 장애인의 수의 3/4를 차지하고 있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철저히 소외 받고 있으며 교육받을 권리와 노동할 권리 등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당한 채 어려운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문제의 심각성은 아·태 지역의 하나의 국가인 우리 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4월에 개최한 '한국사회의 여성장애인문제와 해결책에 관한 공청회'에서도 밝혔듯이 우리 사회의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라는 이유로 이중·삼중의 고통을 겹겹이 쌓안고 살아가고 있으며, 가난한 여성장애인의 경우는 미래에 대한 희망도 갖지 못

한 채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자주 들추어내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성장애인분과 '빛장을 여는 사람들'은 지난해 12월 15일에 출범하여 일년여간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빛장은 지난 8월 말부터 10여일 동안 북경에서 열린 세계여성대회 비정부 포럼에 다녀왔으며, 이에 대한 보고를 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북경에 다녀온 직후에 곧바로 보고대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참가기만을 소개하는 것보다는 북경대회에서 가져온 다양한 자료에 대한 번역 등으로 시기가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오늘 마련한 이 자리는 북경대회의 의미와 선진외국의 여성장애인문제 해결 방안들을 살펴보고 우리사회의 여성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자리는 우리의 합성입니다.

알려진 바 대로 우리 나라의 여성장애인에 대해서는 아직 수치를 알 수 있는 실태 조사가 이뤄진 조차도 없습니다. 신뢰성 있는 현황과약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통계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 그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여성장애인이 겪는 이중 삼중의 깊은 수렁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빛장을 열고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성장애인분과
'빛장을 여는 사람들'

제4회 세계여성회의 비정부(NGO) 포럼 참가기

김미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성장애인분과 '빛장을 여는 사람들' 회원)

들어가는 말

지난 8월 30일부터 15일 동안 중국 북경에서 제 4회 세계여성대회가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각국의 나이로비 여성 발전 미래 전략 이행 사항을 검토하고 2천년대 여성 발전 미래 전략을 강구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여성들(정부와 비정부 관련자)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본인은 정부간 회의가 열리는 북경 근처 회현시에서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열린 비정부 포럼(전세계 3만 여명의 여성들이 참석)에 참석하여 각종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왔다.

비정부기구(NGO) 포럼은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누구든지 신청해 장소와 시간을 배정 받아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타내고 토론하고 여론화할 수 있는 행사로 정부간 회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전 세계 비정부 기구간의 포럼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90여개의 비정부 여성단체, 약 3백여명이 참석해 세계여성회의에 대한 관심과 성숙된 한국여성운동의 진면목을 전 세계에 알렸다.

우리 나라 비정부 여성단체들은 이번 비정부포럼 참가를 위해 지난 1여년 동안 3

명의 공동대표와 실행위원회 등 '한국여성 비정부(NGO)위원회'를 조직하고 12개 주제 분과를 선정하여 각 단체가 원하는 주제를 선택해 함께 보고서를 작성, 각 주제분과에 해당하는 한국여성의 실태를 전 세계에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우리 나라 정부의 1985년 나이로비 여성발전 미래 전략에 관한 이행사항을 '정치세력화', '미디어', '문화와 예술', '인권과 성폭력', '종교', '여성장애인', '여성과 개발', '환경', '교육', '건강', '경제세력화', '평화'등 12개 주제 분과로 나누어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2천년대 미래 여성 발전을 위한 제반 사항을 제시한 것이다.

이 중 '여성장애인' 분과는 이 보고서에서 주제분과로 선정되어 한국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실태를 보고함으로써 한국여성운동의 새로운 분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또한 이번 비정부포럼을 계기로 여성장애인이 국제회의에 처음 참석하여 스스로의 목소리를 높여 국내외로 한국 여성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국내 여성계에 여성장애인 운동이 자리 매김 됐으며 세계 여성장애인들과 국제적인 연대 틀을 마련하는 성과를 낳았다.

이번 비정부포럼에는 전 세계 20여개국의 2백여명의 여성장애인들이 참여해 각국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불평등과 편견 그리고 폭력 실태를 보고하고 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여 그 대안을 마련하는 기회를 가졌다. 그리하여 북경에서 열린 정부간 회의에서 이것을 적극 수렴하도록 포럼장 내에서의 정기적인 집회와 각국 언론에 대한 여론화 작업등 맹렬한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또한 다가오는 2천년대의 여성장애인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연대활동을 위해 전 세계 여성장애인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전세계 여성장애인 운동의 역사적인 새 지평을 마련하였다.

한편 지난 15일 폐막된 제4차 세계여성회의는 남녀간의 평등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여성의 실질적인 권리확보를 위한 여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논의돼 여성문제가 더 이상 주변적 부수적 문제가 아닌 국제적 중심 주제임이 확인된 회의였다. 또한 지난 나이로비회의가 당시 냉전구조 상황 때문에 여성의 평등

추구범위가 제한적이었지만 이번 대회는 시대상황을 반영해 탈 이념, 탈냉전의 새로운 틀 속에서 활발한 논의가 벌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인이 이 포럼에 참석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해준 연구소와 빗장 회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국제여성기구(UNDP)의 '북경에 한 자매 더 보내기'기금을 지원해 준 한국여성비정부(NGO)위원회에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강력한 지지가 많은 힘이 되었다.

9월 중에 열린 북경여성대회에 대한 보고를 이제야 해,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좀 더 충실한 내용을 위해 포럼 기간 동안 수집한 각종 자료들을 "빗장을 여는 사람들"과 함께 번역 작업으로 늦어졌음을 널리 이해해 주리라 믿는다.

다음에 계속될 내용은 북경여성대회에 참가한 참가기와 각종 수집된 자료들로 구성된 부록들이다.

1. 전 세계 2백여명의 여성장애인과 장애인테트에서

세계여성의 평등, 발전, 평화의 구호 아래 전세계 3만 6천여명의 여성들이 모인 북경 위성도시 회현시에서 열린 제4차 세계여성대회 비정부기구(NGO)포럼은 전세계 여성의 감격적인 해방의 나날이었을 뿐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여성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뜻깊은 기간이었다.

이 포럼에서 여성장애인들의 교류의 장은 그 어느 영역의 주제 워크숍보다 적극적이었고 활동적이었다.

이번 비정부 포럼 기간에는 20여개국에서 온 지체, 시각, 청각, 뇌성마비, 정신지체의 장애를 가진 2백여명의 여성장애인과 자원활동자가 참여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국제적 규모의 장애인기관이나 전문 여성장애인 기구들의 참여와 활동도 두드러졌다.

또한 9일간의 포럼기간에 장애인테트에는 각 국에서 온 여성장애인들의 자발적인 발표와 모임의 장이 되었다. 그리고 다른 여성관련 워크숍들과 함께 장애인 관련 국제

기구들의 전문적인 연구와 각국 여성장애인들의 자국의 여성장애인 실태에 관한 내용 등으로 구성된 전문 워크숍이 하루에 3-4개 이상씩 펼쳐져 세계각국에서 온 여성장애인의 정보와 의견 교류의 중요한 자리가 되었다.

그러나 “편의시설과 정보에 대한 접근권”에 대한 인식 부족은 비정부 포럼장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아쉬운 점이였다.

장애인테트는 포럼장에서도 가장 외진 곳이였고 가는 길은 비가 오는 날이면 진흙탕이 되기 일쑤여서 많은 여성장애인에게 불편과 실망을 주었다. 그리고 장애인 텐트 뿐 아니라 장애 관련 전문 워크숍 장소에서조차 편의시설, 수화 통역 그리고 점자 서비스가 마련돼 있지 않았고 대여료를 요구하는 휠체어 서비스 등은 여성장애인의 접근권에 대한 비정부조직 위원회 측의 이해 부족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여성장애인들은 비정부포럼 기간 동안 권리로서 “비정부기구(NGO) 포럼장의 편의시설과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해 포럼장 곳곳에서 정기적으로 집회를 열었으며 휠체어대여료 돌려 받기 서명운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또한 프레스 센터를 찾아가 각국 언론을 향한 맹렬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을 끌어 여성장애인의 권리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러한 운동의 성과로 결국 5일만에 장애인테트는 비정부포럼장의 중앙으로 옮겨졌고 비정부포럼이 끝날 당시에 휠체어 대여료를 돌려 받기도 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수화 통역과 점자 서비스는 비정부기구(NGO) 포럼 위원회가 끝내 마련하지 못해 포럼 동안 여성장애인 중에서 수화와 점자 서비스가 가능한 자발적인 자원봉사자들이 담당했다.

2. 스스로 권리를 찾는 세계 여성장애인들

포럼 기간 동안 장애인테트는 세계 각국에서 온 여성장애인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모임의 장이 되었다. 이러한 모임과 워크숍 그리고 정기적인 집회는 세계 각국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맹렬히 여성장애인 운동에 가담하고 있는 이번 참가자 개개인들의 뛰어난 역량과 권리의식에 대한 주체적인 면을 유감없이 발휘한 기회였다.

미국의 센터포드에서 온 청각장애인 캐시 핫스의 열띤 발표는 비록 수화로 전달되었지만 듣는 사람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다. 그녀는 미국내의 장애인법인 에이디에이(America disabled Act)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권리는 스스로 찾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녀는 명함 뒤에 영어수화 알파벳을 그림으로 인쇄해 넣어 비록 수화를 모르더라도 이것을 통해 상대방이 자신의 수화 알파벳을 이해하도록 돕기도 했다.

또한 전신마비 장애인으로 손 하나 혼자서 움직일 수 없었던 미국의 모빌리티 인터내셔널 유에스에이(MOBILITY INTERNATIONAL U.S.A)의 회장인 수잔 시갈의 적극적인 활동은 여성장애인의 능력엔 한계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저개발여성장애인의 리더십 훈련 자료를 만들기 위해 이번 포럼에 참여한 거의 모든 여성장애인을 인터뷰했다. 그녀를 돕는 친구 또한 언어 장애가 심한 뇌성마비 여성장애인이었는데 이들의 활동은 장애인테트의 상징이 되었다.

스웨덴에서 온 세계시각장애인연맹의 시각장애여성위원 회장인 키키의 활동도 두드러졌다. 그녀는 장애인테트에서 스웨덴 장애인정책관련 정부 대표를 초청해 스웨덴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관한 워크숍을 열고 앞으로의 스웨덴의 장애인정책, 특히 여성장애인의 정책에 대해 토의하기도 했다.

또한 이번 포럼에 참석한 시각장애여성의 모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각국의 시각장애여성들의 실태와 현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으며 국제 연대활동을 구성하기도 했다.

또한 뇌성마비 장애인인 13세 딸과 함께 영국에서 온 파커 모녀는 포럼장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장애인 텐트와 장애관련 워크숍을 오고 갔으며 장애아동의 특수 교육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하거나 관련 워크숍에 누구보다도 활발히 활동해 인기를 독차지했다.

케냐에서 온 한 흑인여성장애인은 토론이 있으면 언제나 앞에 나와 열띤 토론했

으며 경제적인 여건이 열악한 자신의 나라에선 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라고 많이 안타까워했다. 이는 탄자니아를 비롯해 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다른 여성장애인들도 마찬가지였다.

3. 보다 나은 여성장애인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국제기구와

여성장애인 전문기관들

이번 비정부 포럼 기간에는 여성장애인 개개인의 눈부신 활동 뿐 만 아니라 국제기구들과 전문기관들의 활동도 두드러졌다.

주로 장애인테트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한 국제적 기기로는 쉬아(SHIA), 윈비지블(WinVisible), 디피아이(DPI) 여성위원회 등이었다.

쉬아(SHIA)

-저개발국 장애인의 실태를 연구 조사해 실질적인 정책 마련으로 이들을 대변하고 있는 국제기구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부를 두고 있는 쉬아는 비정부포럼 기간 동안 장애인테트 중심으로 토론회를 열어 각국의 여성장애인들이 자발적으로 자국의 여성장애인 실태와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발표를 하도록 해 전 세계여성의 교류의 장을 주도했다.

쉬아는 1981년 유엔의 전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정된 같은 해에 창립돼 오늘날 전세계의 30만 회원을 가지고 있으며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프리카 등의 18개국에 대한 15개의 발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국제 기구로 저개발 도상국의 장애인과 장애인 조직을 돕기 위해 이러한 국가의 장애인의 실태를 조사 연구하여 이들을 위한 국가적인, 국제적인 발전적 계획을 함께 수립, 수행하는데 그 창립 목적이 있다.

특히 쉬아는 이번 포럼에 아프리카 여성장애인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보와 재정적인 뒷받침을 했다.

이 단체는 금년에 UN의 아시아 태평양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보고서인 히든 씨스터즈(HIDDEN SISTERS)를 작성에 대한 재정적인 후원 뿐 아니라 쉬아와 연대한 전세계 저개발도상국의 여성장애인들의 실태에 대한 자체적 보고서를 마련하여 포럼 기간 동안 배포하기도 하였다.

쉬아는 포럼기간 동안 저개발국 여성장애인에 대한 주제 워크숍 개최했다.

또한 장애인테트 내에서 엽서와 사진들을 전시하고 쉬아의 재정적 기금 마련을 위해 티셔츠 판매 등을 통한 홍보 활동도 활발했다.

윈비지블(WinVisible) -흑,백 여성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국제기구

영국 런던에 위치한 윈비지블(WinVisible : Women with Visible and Invisible disabilities)이란 국제 기구의 활동도 두드러졌다. 자신들의 테이블을 마련해 장애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문구가 새겨진 배지와 팸플렛과 기관신문 등의 홍보와 각국 여성장애인의 회원 가입을 적극 권하기도 했다.

특히 윈비지블 비정부여성조직위원회의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부족 등에 대한 항의, 휠체어 대여료 돌려 받기 위한 서명 활동을 전개해 비정부포럼 현장의 여성장애인의 차별에 대한 시위를 주도하기도 했다.

윈비지블은 다양한 배경과 상황에 놓여 있는 흑인과 백인 여성장애인으로 구성된 일반 대중적인 국제 연합체로 여성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자문과 정보 그리고 도움들을 제공을 위한 홍보와 연구 뿐 아니라 여성장애인의 권리 쟁취, 장애 예방을 위한 실질적 사회적 운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디피아이연맹(DPI)

-전세계 장애인의 네트워크 형성으로 한 목소리를 가지지는 운동을 하는 국제장애
아인연맹

한편 전세계 104개국의 지부를 가지고 있는 디피아이(DPI) 연맹은 포럼 기간 동안
남미, 아시아 태평양,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등 지역별로 전세계 여성장애인들의 국제
적 연대 마련을 중용하기도 했다.

이중 나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타일랜드, 네팔 등의 아시아 태평양지역 10여개
은 여성장애인과 장애인테트에서 마련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여성장애인들의 모임에
참석했다.

여기에서 아태지역의 여성장애인들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남성 중심주의 사회에
서 여성으로서, 그리고 경제성장 중심의 개발도상국에서 소외된 장애인으로서 살아가
고 있는 아.태 지역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현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시아 태
평양 지역의 여성장애인들은 자국의 여성운동에서 소외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장애인운
동에서는 남성장애인에 비해 동등하지 못한 위치에 있음에 서로 공감했다.

네팔의 여성장애인연합의 회장으로 네팔 여성장애인의 대표로 참석한 시실리아는
전세계의 어느 지역보다도 가부장적인 성격이 강한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아.태지역
여성들의 열악한 사회적 위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연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아프리카나 유럽, 북미의 여성장애인들과 달리 영어의 사용이 원활치 못한
아.태지역 여성장애인의 모임은 영어권지역의 다른 여성장애인들에 비해 활동이 활발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방콕에서 열린 아.태장애인 10년 1차
정부이행사항 평가회에서 아.태장애인 10년 행동강령에서 여성장애인을 위한 행동강령
이 채택되었던 것은 높은 성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근접한 지역 국가별 연대 활동은 앞으로 각국의 어려운 여성장애인 운동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국제기구들 뿐 아니라 미국 시카고 재활협회에 소속해 있는 여성장애인 건
강센터, 브룩클린에 위치한 티엘지(TLG)의 장애인부모를 위한 모임, 미국의 국제 지
체장애인 기관 등의 활동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서비스나 전문 기관이 없는
대부분의 다른 나라 여성장애인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시카고 재활협회

시카고 재활협회의 여성장애인을 위한 건강센터는 여성장애인의 의료서비스가 주요
업무이다.

여성장애인은 접근권이 허용되어 있지 않아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
으며 여성장애인에 대한 의사들의 낮은 이해도로 적절한 의료적 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역설하면서 여성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의료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나 적합한 의료, 검사방법들이 개발, 연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건강센터를 통해 시카고의 여성장애인들은 서로의 경험을 함께 나누면서
당면한 실질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고 있었다. 이 센터는 장애관련 기관들이 여성
장애인을 위해 어떠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가에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티엘지(TLG)

그리고 미국 브룩클린에 위치한 미국국가 기관인 티엘지(TLG : Through the

Looking Glass)의 장애인부모모임은 자신의 몸조차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없는 여성 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자녀의 양육을 돕는 전문적인 연구와 상담 그리고 실제적인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어 이번 비정부포럼에 참석한 전 세계의 여성장애인의 관심을 끌었다.

티엘지는 미국 내에서 “장애인의 자립적인 삶을 위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1982년에 설립돼 부모나 자녀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장애인이 있는 가정을 위한 의료적, 지지적 서비스 제공과 관련 연구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는 기관이다. 특히 장애를 가진 부모를 위해 부모역할에 필요한 정보제공, 상담, 서비스, Network 구성, 시각, 청각 여성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에 대한 연구와 서비스, 전문적인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자녀 돌보기에 유용한 기구 개발 등 독특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티엘지는 이러한 연구와 유용한 장비들의 소개에 그치지 않고 그것들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장애인부모가 자녀를 잘 키우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와 편견을 적극적으로 해소시켜 가고 있어 당사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다.

“단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녀를 낳아 기르는 가장 기본적이고 인간적인 권리와 행복을 빼앗길 수는 없지요” 포럼장에서 만난 이 기관의 한 회원은 이렇게 말했다.

모빌리티 인터내셔널

미국의 모빌리티 인터내셔널 (MOBILITY INTERNATIONAL U.S.A.)는 여성장애인의 지도력 훈련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기관으로 포럼 기간동안 포럼에 참석한 전세계 여성장애인 모두를 대상으로 각 나라의 장애인 특히 여성장애인 실태와 정책에 대해 인터뷰를 통한 조사를 했다. 특히, 인터뷰 대상 여성장애인의 여성장애인 운

동을 시작하게 된 개인적인 동기와 활동 내용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인터뷰 대상자들의 생각 등을 자세히 조사했다. 이 기관은 미국 오르간 주에 위치해 있는데 전세계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여성장애인 리더십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을 97년 실시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전문 연구기관들의 업적과 활동은 포럼에 참석한 여성장애인을 고무시키기에 충분했다

4. 각국의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인 여성장애인의 실태

그런데 각국의 여성장애인들은 각국의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 이념에 따라 매우 다른 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사회 복지 수준이 높은 스웨덴과 같은 유럽의 사회 민주주의 국가와 경제 선진국인 캐나다, 미국 등의 북미 국가들의 여성장애인 정책과 서비스는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월등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제 경제 개발 도상국의 위치에 있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의 여성장애인들은 국가의 경제성장위주의 정책 밖에서 대부분 소외되어 있는 형편이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불안한 니카라구아는 하나밖에 없는 시각장애인센터가 국가에게 압수되기도 하고 종족간의 분쟁으로 얼룩진 아프리카 지역 등은 전국민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라 장애인복지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나라들은 원비저블이나 쉬아와 같은 국제 기구와 국제 기금 등의 도움으로 장애아동들의 재활교육이 간신히 맥을 잇고 있었다.

그래서 선진국의 여성장애인의 생활은 이러한 환경의 여성장애인들에게 마치 천국과 같은 세상으로 비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비록 이렇게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번 포럼에 참가한 세계의 여성장애인들은 장애인테트를 중심으로 서로 서로가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서로의 호텔 방에 초대하기도 하면서 두터운 우정을 맺었다.

또한 포럼이 끝나갈 즈음엔 워크숍과 토론을 통해 정리된 여성장애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정부간 회의에 대표단을 구성해 파견해 전 세계 각국 정부가 2천년대의 여성장애인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기를 촉구했다.

이후 지난 9월 15일에 막을 내린 정부간 회의는 12개의 주제분야를 설정해 이에 관련된 행동 강령이 채택됐다. 12개 각 주제 전반에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내용과 문장이 스며들어가는 여성장애인의 권리는 이제 각국의 실행의지에 달려있다.

이제 전 세계 여성장애인들은 자국의 정부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실한 약속이행에 대한 10년 동안의 모니터와 압력 활동을 하며 여성장애인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고 다시 제5회 세계여성대회 비정부 포럼에서 만날 것이다. 이번 포럼을 기회로 형성된 여성장애인의 국제적 연대는 앞으로의 지구촌 여성장애인의 보다 나은 삶에 커다랗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듯 10여일의 비정부 포럼 기간은 전 세계에서 온 2백여 여성장애인의 우정과 서로를 향한 격려의 뜻깊은 역사적인 기간이었다.

5. 이제 여성장애인 문제 해결은 각국의 실천의지에 달려.

이렇듯 제4회 세계여성대회 비정부 포럼은 사상 유례없이 전세계에서 2백여명의 여성장애인이 참석한 뜻깊은 대회였다. 이미 유럽, 미주, 아프리카의 여성장애인들은 지역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지만 이렇게 전세계 여성장애인들이 동시에 한 장소에 만나 서로의 관심과 실태 그리고 정보를 교환한 것은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특히 국내에서 처음으로 여성장애인이 참가해 세계의 여성장애인을 만나 지구촌 여성장애인운동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뜻깊은 사건이었다.

이 기간 동안 전세계 언론 뿐 아니라 우리나라 언론을 통해서도 여성장애인에 대한 문제 의식이 국내에 제기되어 여성계 내에서는 이제까지 소외되었던 여성장애인 운동이 자리매김되었으며 동시에 국내의 장애인운동에서의 본격적인 여성장애인운동의 시

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매년 15만이 넘는 후천적 장애인이 환경오염, 교통사고, 산업재해, 질병 등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젠 누구라도 장애인이 될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제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복지 정책도 나날이 증가하는 장애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질적 향상을 위해 장애유형과 계층에 맞는 실질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번 제4회 세계여성대회를 기회로 여성장애인의 권리와 결혼문제, 아이를 낳고 기르는 문제 등과 같은 특수한 문제들에 대한 국가 정책적 관심이 촉구됐다. 이제 이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노력이 시급히 요청된다. 우리나라 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무 제2부처와 여성 개발원 등 국내 정부 관련 부처와 연구 기관 등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책 마련과 연구들이 국가적 차원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함은 물론 장기적인 여성장애인을 위한 국가적 대책이 마련돼야 할 때이다.

정부는 국제법에 여성장애인 관련 법들이 채택되었음(예: 아·태 장애인 10년 여성장애인을 위한 행동강령, 제4회 세계여성대회 12개 관심 분야에 단어와 문장 속에 삽입된 여성장애인 관련 항목, 유엔 장애인 선언 중 '모든 연령의 여성장애인을 위한 개선 사항' 등)을 유의하고 장애인 관련 법규에서 여성장애인에 관한 항목을 개발해, 첨가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활발히 전개될 국내 여성정책 모든 분야에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들이 반드시 삽입돼야 한다.

또한 현 우리나라 여성계에서도 사회에서 "여성", "장애" 그리고 "가난"이란 삼중고의 구조 속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성장애인에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할 때이다.

특히 전문적인 여성의 상담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 단체들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편의 시설 설치 등의 우선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각 여성단체들이 여성복지 실천의 장으로서의 여성장애인의 복지에 앞장설 때 이

땅에 진정한 여성복지가 실현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장애계의 여성장애인 전문 상담 창구가 마련되어 현실적으로 여성장애인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조사 그리고 상담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외국의 발전된 여성장애인 관련 국제 단체들과의 활발한 정보 교류 등 국제적인 창구 역할 뿐 아니라 국내 여성장애인을 대변하는 정책 대안 개발 연구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장애계의 여성장애인운동의 필요성의 동의와 이를 위한 실천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여성장애인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는 여성장애인 스스로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세계 선진국의 여성장애인 운동의 첫 발걸음은 여성장애인이 당면한 불평등과 편견에 맞서기 위해 소외된 자리에서 스스로 일어나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권리를 위해 함께 행동하였을 때 시작되었다.

이제 우리나라의 여성장애인들도 소극적인 자리에서 일어나 스스로 닫은 “빋장”, 그리고 사회가 여성장애인을 향해 닫은 “빋장”을 함께 열어 이 땅의 진정한 여성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이루어내야 할 때이다.

부록

- 부록 1. 세계여성회의
- 부록 2. 스웨덴의 장애인 정책
- 부록 3.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성장애인 기관
- 부록 4. 쉬아(SHIA)와 유엔의 여성장애인 보고서
- 부록 5. 여성장애인의 권리
- 부록 6. '빋장을 여는 사람들' 활동보고

세계여성회의

1) 세계여성회의의 역사

유엔은 인류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여성의 사회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1975년을 '세계여성의 해'로 선포하고 "유엔 여성 10년(1976 -1985)"을 제정하였다. 이리하여 1975년을 기점으로 세계여성회의가 열리기 시작했는데 올해 북경에서 제4회 세계여성회의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매 세계여성회의 때마다 채택된 행동강령과 실천계획은 유엔 총회의 승인 후에 세계 각국의 여성정책으로 이어져 왔다. 제1차 세계여성회의는 멕시코에서 개최돼 멕시코 선언 및 평등, 발전, 평화의 주제 아래 219개항의 세계행동계획이 채택됐다. 이때 참가한 국가는 133개국이었으며 약 2천여 명의 정부대표와 6천여명의 비정부 차원으로 6천여명이 참가해 "유엔 여성 10년(1975 - 1985)"을 선포할 것을 유도하였다.

1980년에 코펜하겐에서 열렸던 제2차 세계여성회의는 유엔여성10년의 중간평가와 아울러 유엔여성 10년 후반기 사업으로 교육, 보건, 고용 등 부주제를 추가하여 287개항의 행동강령을 채택하게 된다. 이때는 정부대표 2천여명과 비정부대표 8천여명이 참가했다.

또한 '유엔10년을 마감하는 1985년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3차 세계여성회의는 153개국으로부터 2천여명의 정부대표와 비정부기구(NGO)포럼 1만 5천여명이 참가했다.

이 회의에서는 '유엔여성 10년'간의 사업을 종합평가한 결과 참가자들은 여성문제의 해결과 목표달성을 10년동안에 이룰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위해 372개항에 달하는 "2천년을 향한 여성 발전 미래전략"을 채택하고, 향후 15년을 제2의 여성발전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10년 후인 1995년 제4회 세계여성회의를 북경에서 개최하여 동 전략의 이행사항을 중간 점검, 평가하기로 합의했다.

2) 비정부기구 여성조직(NGO)의 활동

그러나 여성발전을 위한 정부간 역할의 중심체인 '유엔여성이기위원회'는 각국의 정부대표로 구성된 유엔기구로 정부대표들이 모이는 공식회의는 여성의 실질적인 권익의 추구보다 정부의 체면유지나 정치적 이슈 등 자국의 이해관계를 중시하여 발언하고 제안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것을 보완하고 민주적 원칙에 입각한 민간인의 여론이 반영되게 하기 위해 유엔은 유엔 헌장 74조의 자문관계 조항을 마련하였다.

이 조항은 유엔이 비정부기구(NGO)의 전문지식과 정보를 수렴할 뿐 아니라 세계여론을 대표하는 민간단체로 하여금 그 의사를 표현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유엔에 여성지위위원회를 두고 있는 유엔의 핵심기구인 경제사회이사회(ECOSOC)는 등록된 국제비정부기구(NGO)를 자문기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자문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 관련 국제 비정부기구(NGO)는 80여개에 이른다. 유엔경제사회이사회, 공보부, 여성지위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뿐 아니라 유네스코(UNESCO),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전문기구의 각종 회의에 참가하여 정부대표들이 다루지 못하는 여성문제를 제기하고 발언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비정부기구(NGO)들은 유엔의 각국 회의에서 정부대표와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유엔에서 결정할 사항을 자국에서 시행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사실 유엔이 1975년을 '세계여성의 해'로 제정하고, 세계여성회의를 개최하기 시작한 것도 '국제전문직여성클럽', '세계여성단체협의회', '국제여성민주연맹' 등과 같은 비정부기구(NGO)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이를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로비활동과 압력단체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세계여성회의의 비정부기구(NGO)대표들의 참가 수는 공식회의 정부대표 수를 능가해 왔으며 정부대표들의 제약을 넘어 순수하게 전 인류와 세계 차원에서 문제를 다루게 됨으로써 논의되는 문제의 핵심에 보다 더 실질적으로 접근하도록 노력해 왔다.

지구촌 공동체를 요구하는 금시대에 유엔이나 ESCAP 등의 국제기구의 활동 못지 않게 비정부기구(NGO)들에 의한 국제간 협력은 세계 평화와 복지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들 국가간의 관계는 국가 이익과 원리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지만 비정부 기구는 국경을 넘어 초국가적인 이해와 협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3) 세계여성회의의 비정부기구(NGO) 포럼

4회에 걸친 세계여성회의는 정부대표로 구성되는 본회의와 비정부기구(NGO) 포럼, 이 두 축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 중 비정부기구(NGO) 포럼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 독특한 홍보활동의 장을 마련하고 전 세계의 여성들이 개인 혹은 단체의 이름으로 여성문제를 토론하고 워크숍과 심포지엄을 열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공동의 장이다.

제1회 멕시코 시티에서 열린 세계여성회의 때 아이더블류와이 트리뷴(IWY Tribune)이란 이름으로 열린 비정부기구(NGO)들의 포럼에는 전 세계에서 6천여명의 여성들이 참여하였으며 농촌여성에서 여자 우주비행사에 관한 워크숍 등 2천여개의 다양한 워크숍이 개최됐다.

첫번째로 개최된 이 비정부기구(NGO)포럼은 여성의 발전을 향한 행동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여성에 대한 새로운 프

로그램과 단체들을 만드는 동기를 심어 주었다고 평가된다.

1980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2회 세계여성회의의 비정부기구(NGO) 포럼에는 8천여명의 여성들이 참여하고 가사노동임금, 여성해방론, 여성학, 성착취, 기술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워크숍과 자문회의가 150개 이상 열렸으며 이에 대한 토론들이 이루어졌다. 이 포럼은 국제적인 여성운동에 기여했고 국제 네트워크를 개발하는데 공헌했다고 평가된다.

제3회 세계여성회의의 비정부기구(NGO) 포럼은 1985년 나이로비에서 열려 1만 5천여명이 총회에 참가했으며 1천 4백개 이상의 워크숍과 전시회, 영화 및 비디오 상영, 시위, 바자회 등 다양한 형태의 모임들이 열렸다. 또한 법과 여성발전을 비롯해 동성연애권리, 난민, 가정 폭력, 정책결정에의 여성 참여, 여성과 예술, 여성문제에 대한 연구 등 한층 더 다양한 주제의 토론이 있었다. 이 회의는 여성문제에 대한 여성적인 시각과 접근 방법을 위한 국제적인 강령을 제공하였다.

4) 제4회 세계여성회의의 비정부(NGO) 포럼

제4회 세계여성회의는 4만여명이 참가해 역사상 그 규모가 가장 큰 세계여성회의로서 정부간회의, 정부기구와 비정부 기구 모임, 비정부 포럼 등의 형태로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5일 까지 중국에서 열렸다.

비정부포럼은 북경의 동북부에 위치한 회현시에서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약 10일 동안 정부간 회의보다 앞서 열렸는데 전 세계 2백여 나라에서 온 3만여명의 여성들이 참가해 하루 5백여개 이상의 워크숍, 5천여개에 이르는 세미나, 간담회, 토론회, 패널토의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비롯해 국가별, 지역별 문화행사 등 다채롭고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이번 제4회 비정부 포럼의 주제는 “여성의 눈으로 세계를 보자!” “여성의 권리는 인간의 권리다.” 였다.

여성 장애인에 관한 주제는 이번 포럼에서 각별한 관심을 끌었다.

휠체어를 타고 목발을 짚고 포럼에 참가한 2백여명의 여성장애인은 포럼장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에 항의하는 것으로부터 목소리를 높여 연일 정기시위를 벌였으며, 여성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세계 각국에 촉구하기도 했다.

이렇듯 이번에 열린 비정부기구(NGO)포럼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억압받고 시달려온 여성들을 위해 “평등·평화·발전”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대책방향을 제시했고, 정부간회의(GO)가 주도해온 다른 회의 때와는 달리 민간(NGO)여성들의 목소리를 드높여 그들의 목소리를 정부간 회의의 “행동강령”에 크게 반영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단순히 목소리만이 커진 것이 아니라 정부회의에 적극적으로 비정부기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활동을 벌인 점이 두드러진다. 처음으로 지역별 대표를 뽑아 비정부기구의 목소리를 정부간 회의 쪽에 전달하는 공식창구 구실을 하는 ‘에키포’라는 기구를 만들어 조직적인 준비활동을 벌였다.

5) 한국 여성비정부(NGO)위원회의 활동

우리나라는 지난 94년부터 90여개의 국내 여성 단체들은 공동대표와 한국 비정부기구(NGO)실행위원회를 선출하여 북경 세계여성회의를 조직적으로 준비해 왔다.

한국 여성비정부기구(NGO)위원회는 먼저 12가지 주제 분과를 선정해 각 단체가 자유롭게 관심 있는 주제에 참여하도록 했다. 같은 주제에 함께 참여한 단체들은 지난 10년 동안의 한국정부의 나이로비 행동 전략의 이행 사항을 평가, 이와 관련된 한국 비정부 여성단체들의 활동 보고, 그리고 2천년대의 미래 여성 발전을 위한 한국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제안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 비정부기구(NGO)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는 정치세력화, 미디어, 여성장애인, 여성과 개발, 평화, 건강, 종교,

교육, 환경, 인권과 성폭력, 경제 세력화, 문화와 예술 등 12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여성의 경제세력화를 위한 갖가지 방안, 통일에서의 여성의 역할 등과 같은 내용도 담고 있어서 한국여성의 현황과 방향을 총체적으로 검토한 보고서로 평가 받았다. 이 보고서를 기초로 한국 여성비정부기구(NGO) 위원회는 포럼 기간 동안 한 목소리를 내었고 군위안부, 성희롱, 성폭력 등의 부분은 정부간 회의에서 채택되는 행동강령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6) '빛장을 여는 사람들'이 제출한 한국 여성 비정부기구(NGO) 위원회 여성장애인 분과 보고서 준비 활동

여성장애인 분과는 왕성한 활동을 벌인 환경분과와 함께 이번 주제 분과 선정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여성운동에 새로운 분야로 주목 받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여성장애인분과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여성장애인들은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의 질곡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밝히면서 나이로비 여성 미래 발전 전략 중 다섯번째 주제분과인 특수관심분야의 296항에 심신장애여성에 대한 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제296조의 이행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여성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또한 여성장애인에 관련하여 정책 개발이 단 한건도 마련된 적이 없으며 여성정책 개발에서 여성장애인은 소외되어 왔고 심지어 장애인정책 개발시에도 여성장애인은 소외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 관련 법안에서도 여성장애인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할애하고 있지 않으며 기타 서비스 차원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더구나 한국의 여성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정무 제2장관실이 발표한 '나이로비 여성발전 전략 이행 국가 보고서(1985-1994)'에서도 전반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보건 등과 같은 유사 정책 분야에서도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나 이행 사항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결과로 다음과 같은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첫째,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 마련에 대한 정부의 의지 부족, 둘째 장애인 단체에서의 무관심, 셋째, 여성단체의 관심 부족 그리고 당사자인 여성 장애인들의 권리 주장에 대한 의지 부족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렇듯 여성장애인은 전반적으로 사회에서 소외되어져 온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남성 중심적인 사고가 팽배해 있는 장애계에서조차 여성장애인은 보조적인 역할만 해 왔으며 여성장애인에 대한 특수한 복지 욕구나 상황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

이러한 원인은 우선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전반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열악한 현실에 그 첫번째의 원인이 있으며 정부 뿐 아니라 장애계 또한 장애인의 복지정책이나 개선 방향을 막연한 장애인계층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보고서는 평가한다.

또한 앞으로 장애인 복지가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낳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특수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제시되고 실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제안 사항을 "2천년대 미래 여성장애인 발전 전략"으로 제안했다.

첫째,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해 여성장애인과 직접 관련된 정책과 의사 결정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를 제안했다.

둘째, 여성장애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연계체제를 위해 여성정책 전담 기구들 내에 특별관심분야 전담기구를 두고 그곳의 분과 형태로 여성장애

인분과를 두어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적극 추진할 것 등을 제안했다. 특히 5년마다 실시되는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성별 구분된 통계를 실시해야 하며 이 실태조사에서 여성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는데 활용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셋째, 여성장애인의 권리인식 개선을 위해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국내외 법, 제도 개선 및 홍보활동, 대중매체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내용에 관한 심의기준 마련 및 모니터링 지원을 통한 이미지 개선.

넷째, 여성장애인의 경제적인 자립을 위한 노력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조항 중 여성장애인의 취업활성화를 위한 조항의 삽입, 여성장애인을 위한 직업교육 기회 확대와 자질에 맞는 직업교육 실시 등을 제안했다.

다섯째, 또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조기교육의 의무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통합교육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이 마련되고 여성장애인이 교육받을 수 있는 특별조치와 지원을 요청했다.

여섯째, 폭력으로부터의 여성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폭력특별법”에서 ‘친고죄조항’을 철폐하고, 이 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도 시설내 여성장애인에서 전체 여성장애인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특히 성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시설내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전문 기구를 관련 정부 기관 내에 두기를 강력히 요청했다.

일곱번째, 여성장애인의 사회복지 정책 개선 사항을 위해서는 모자가정의 복지증진, 각종 사회보장제도 확대실시를 요구했다.

여덟번째로는 여성장애인의 특별한 욕구에 맞는 주거 및 사회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에서는 여성장애인문제의 해결은 여성문제 혹은 장애인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됨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해결해 가야 할 당면과제로서 의식을 공유해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여성장애인 혹은 여성장애인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앞서야 하며 사회단체, 여성단체, 장애인단체와의 긴밀한 연대와 함께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여성장애인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서로 교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성장애인문제를 단지 문제로 인식하는 정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권리회복 운동을 병행하는 속에서 이루어져야 여성장애인이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모태가 될 것이라고 향후 방향을 제시했다.

스웨덴의 장애인 정책

이 글은 세계여성회의에 참석하여 수집한 자료로서 국내의 장애인정책과 비교할 만한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 번역·수록한다. - 편집자 주 -

스웨덴 장애인 정책의 목적

스웨덴 장애인 정책의 주목적은 '장애인의 폭넓은 참여와 평등'이다.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는 일반인이 누리는 권리와 다를 바가 없으며 이러한 스웨덴 장애인정책의 목적달성을 위한 책임은 사회전체는 물론 궁극적으로 국가, 그리고 지방정부와 의회의 몫이다.

스웨덴 장애인 정책의 성장배경과 조건

스웨덴은 인구(8천8백만명)가 적고 고도로 산업화된 나라로서, 냉전전쟁에 말려든 전례가 없었다는 점과 방대한 천연자원을 가졌다는 점을 배경을 바탕으로 50년부터 30여년간에 걸쳐 커다란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스웨덴의 이러한 경제성장은 사회 개혁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에 발맞추어 스웨덴 정부는 장애인문제에 관해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의회에서 각 정당의 지지를 받았다.

스웨덴의 사회복지정책

스웨덴의 사회복지정책은 스웨덴의 사회 구조를 이루고 있는 기본틀 중

하나이다. 스웨덴에서는 모든 시민에게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기본 욕구와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사회의 특정 압력단체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모든 시민을 위해 그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복지정책은 차별 없이 장애인에게도 적용된다. 이러한 정책의 기본은 세금정책에서 부터 시작된다. 이들의 세금정책은 전체의 공동선을 위해 납세자의 능력에 따라 납세율이 분배되어 있다. 즉, 기금은 평등사회의 원칙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능력 조건을 기본으로 레벨의 차이를 두어 배분되는 것이다.

‘장애’의 정의

장애인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소개된 장애의 개념은 스웨덴 장애인 정책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스웨덴에서의 ‘장애’란 각 개인과 그들의 환경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말하며 개인의 특질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의무 분할 원칙

근본적으로 장애인들의 생활 여건에 많은 작용을 하는 스웨덴 사회 구조의 특징 중의 하나는 ‘책임의 분할’이다. 주요 정책이 지방분권 체제를 통해 결정되면서도 중앙 정부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정부의 주요 책임 업무는 사회보험이나 각종 정책의 계획과 분할에 관한 입법화이다. 지방정부는 교육, 어린이 양육, 주택산업 그리고 사회서비스에 관한 기본적인 책임을 맡고 있다. 지방의회는 의료보험에 관련된 일을 주업무로 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의회에서는 의료, 사회복지정책 뿐만 아니라 교육, 그리고 노동시장내에서의 일반 대중서비스 정책에 관해 그 책임과 관리를 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웨덴에서는 사립학교나 개인 병원이 드물다. 지난 수십

년 동안은 장애인을 치료하는데 실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선단체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감소되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책임의 양이 지방으로 분배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의료, 사회복지에 관한 일반 국민의 의안 제출권이 이루어지고 중앙정부와 장애단체 조직의 접촉을 쉽게 하기 위해 지방 각 지역에 공동의 협동기구를 두게 되었다.

그리고 1994년 7월 1일 장애인민원조사관리소 (The Office of the Disability Ombudsman)가 공식 창단식을 가졌다. 이 관리소의 규정 중 하나는 정부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그 규정은 “정부는 민원조사관 (Ombudsman)과의 협상, 혹은 정보교환 등을 거절 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특히, 장애인들에게 기회의 평등권을 명시하고 있는 유엔 기본 원칙 (UN's Standard Rules)은 중요한 조약이라 할 수 있다. 이 원칙은 1993년 국무회의에서 채택되었는데 그 원칙의 기본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의 평등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여건들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관리 정비하는 것이 장애인 민원조사관의 의무이다.

게다가, 장애인 민원 조사원은 정부와의 로비활동을 통해 복지법의 결정을 보완, 법적인 개정까지 목적을 두고 일하게 된다.

장애인 운동

스웨덴의 장애인복지정책이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중요 원인 중의 하나는 장애인 정책운동이 스웨덴 국민 전체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 스웨덴 사람들은 특수 단체나 조직의 멤버가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다. 대략 47만명의 스웨덴 국민이 장애인운동을 하고 있다. 국가적인 수준에서 볼때, 40여개의 대표적인 장애인 단체가 있고 2000여개의 지방장

애인 조직체가 있다. 특히 국가적인 차원의 단체들은 29개의 조직망으로 편성된 스웨덴 장애인 협동조직부서(Swedish Cooperative Body of Organisation of Disabled People)를 두고 있기도 하다. 스웨덴의 이와같은 장애인단체들은 정부와 지방의회 그리고 지방정부로부터 장애인 문제 홍보나 정보수집 그리고 연구를 포함한 활동을 위한 경제적인 자금을 지원받는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직접적인 활동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조직을 장애인 문제에 관해서는 고문으로 인정한다. 특히, 정부를 통해 인정을 받은 장애인을 대표하는 장애인 고문들은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 장애인들의 문제에 관해 참고인으로써의 역할도 역임하게 된다.

법률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이 겪고 있는 교육, 환경 그리고 사회서비스에 관련된 자신의 문제를 통합하려는 장애인의 의지에 의해 만들어졌다. 지방정부의 사회 서비스정책이나 지방의회의 건강, 의료에 관한 정책 등은 법의 특수 골격에 의해 만들어지지만, 장애인 스스로의 가이드라인에 의해 장애인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지방정부와 의회에서 주어진다. 1982년, 지방정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법령에는 장애인이나 정신지체장애인이 지역사회활동에 활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협조를 강조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단체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지방의회의 또다른 의무 중에 하나는 장애인의 사회참여과 복귀를 위해 지체장애인에게 기술 습득을 위한 도움을 제공한다던지 시각장애,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화통역을 책임 관리하는 일이다. 이러한 의무는 건강, 의료서비스 법령에도 새로이 첨

가, 규칙화된 의무이다. 그 법령은 모든 시민에게 건강의료서비스가 동등하게 제공되고 환자들과의 협조와 조화를 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1994년 1월 1일 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조와 서비스에 관한 법안은 일반 장애인의 권리 문제로까지 확대 되었다.

이러한 법안은 법의 특수 골격을 강조하던 스웨덴 정부의 경향을 뒤바꾸게 된다. 그로 인해 "명확한 기능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서비스"(LSS : Support and Service for person with Certain Functional Impairments)가 더 중요하게 부각된다. 새롭게 부각된 이 법안의 중요 요소는 개인적인 보조 원칙이다.

지방정부에서는 보조원을 임명하거나 각 개인에게 경제적인 보조를 제공하게 되고 그를 위해 임명된 사람을 보조원으로 고용하게 되는데 65세 이하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

이러한 특별법을 바탕으로 국가에서는 주에 20시간 이상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은 그 비용을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그러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간이 주에 20시간을 넘지 않을 경우 그 필요 비용은 지방정부에서 지불하게 된다. 스웨덴에는 약 1만명의 자격을 갖춘 개인 보조원들이 있다.

또한 이러한 법안은 장애아동을 둔 부모에게까지 그 원칙이 적용되는데, 부모들은 장애아동을 돌보기 위해 일년에 10일씩 회사로부터 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그에 대한 경제적인 보조금도 지급받게 된다.

법안에는 자문상담, 개인적인 보조, 동우회 활동, 집 외의 사회 보호시설 등에 관해 규정되어 있는 원칙을 살펴볼 수 있다. 스웨덴에서는 대략 29만여명의 장애인이 정부로부터 보조와 혜택을 받고 있다.

그중 7천명정도가 어린이와 젊은이들인데 이는 지적습득이 가능한 장애인을 위한 엘에스에스(LSS) 법안이 새로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약 10만여명의 장애인이 이 새로운 법

안을 바탕으로 다양한 보조를 받고 있다.

장애아동을 위한 사회복지

부모들이 일하고 있는 동안 대부분의 스웨덴 어린이들은 하루 또는 시간제로 유치원을 다닌다. 사회복지법안에 의하면 장애아동들이 유치원을 다녀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에서는 장애아동이 유치원내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유치원에 있는 장애아동 중 90%가 지적습득이 가능한 아동들이다. 유치원엔 특수 훈련을 받은 교사들이 있어 시각, 청각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이 다니고 있는 유치원의 직원과 부모들을 위한 지원과 관리 등을 한다. 일반 유치원에 다닐 수 없는 장애아동을 위해서 특수유치원과 연관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만든 특별한 부서도 있다. 심각한 청각장애를 가진 아동과 일반 청각장애를 가진 아동을 위한 특수 유치원도 있다.

지방의회에서는 장애아동의 활동 참여를 위해 물리요법, 작업요법, 구두교정요법 등의 치료와 연구방법을 개발 하고 있다.

주거환경

주택사업계획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방정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주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쓴다. 특히, 지방정부에서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배려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주택부지 결정에 있어서 거주자들에게 좋은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많은 신경을 쓴다. 건설 초기 작업에서 부터 합리적인 설계와 원칙은 주거환경을 더욱 편리하게 하며 결과적으로는 지체장애인이 일반 현대식 아파트에 살 수 있도록 건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더 많은 배려와 설계가 필요하다. 특별한 경우에 정부에서는 지체장애인이 원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주택 설계를 허용해 주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신구주택구조사업에도 적용되어 지체장애나 시각장애 알레르기, 결장절개 수술을 한 사람 등 다양한 종류의 장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용된다. 스웨덴에는 장애인이 필요로 한다면 24시간 도움과 보조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아파트도 있다.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의무는 지방정부의 몫이다. 지방정부에서는 어떤 특수 편의시설에 소속되지 않은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조직적인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정방문서비스의 주 업무는 세탁, 요리, 쇼핑, 옷정리, 개인건강을 포함한 일상적인 집안 일을 돕는 것이다. 또한 가정방문서비스는 산책을 한다던가 문화행사장을 방문한다던가, 레크레이션 등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빼놓지 않는다.

가정방문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불은 정부로부터 지급되는 보조금의 수입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시설에서의 생활

지난 10년 동안 스웨덴의 수용시설은 일반적인 주거지역에서 점차 확대된 다양한 독립적인 생활 형태로 변모해왔다. 다른 사람과의 보조체제 속에서 장애인이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 이러한 발전은 특히 정신지체장애인 사이에서 두드러진다. 엘에스에스(LSS) 법이 생긴 이후로 그들은 더이상 주요 시설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2천명 이상의 정신지체장애인들은 여전히 수용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엘에스에스(LSS)법률이 제정된 목적은 성인이 된 정신지체장애인이 사회로 나가 자신의 가정을 이루도록 하는 데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이나 청소년은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래동안 시설에서 생활해왔던 사람들은 성장의 전환기 동안 자신

의 가정을 꾸리는 방법을 훈련받기 위해 그룹홈에서 생활 할 수도 있다. 이런 종류의 가정은 지도원이 함께 생활하는 그룹홈과 없는 그룹홈이 있다.

교육

교육은 장애아동 뿐 아니라 비장애아동, 성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다른 사회성원과 동등하게 교육적 발달과 훈련기회를 향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소그룹의 형태의 교사, 재활전문가, 개인적인 보조원 등의 사회적 지원이 이뤄진다. 이러한 지원은 점차 주정부의 지원으로 축적되어 왔다.

국립 스웨덴 본부와 같은 중앙본부는 특수교육을 지도하고 개발하기 위한 사회적 교육의 지원과 제공을 위해 교육자료를 제작할 책임이 있다. 최근에는 정신지체장애아동의 대다수가 통합교육 혹은 일반 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이것은 또한 시각 및 청각장애학생들에게도 거의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다. 나이가 어린 시각장애학생에게는 교사들과 상담전문교사의 지도를 받은 학생들이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가 있다. 스웨덴의 국회에서는 수화를 청각장애인들의 제1 언어로서 인정하도록 노력해 왔다.

이것은 청각장애인들이 그들 자신의 언어로 배운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수화를 같이 쓰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필요한 것과 같이 이것은 청각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가 설립되어 왔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스웨덴에는 7개의 청각장애 특수학교가 있고 중등과정을 위한 학교도 있다.

정신지체장애학생들을 위한 학교도 있는데, 대부분 일반학교에 가깝다. 또한 시각장애와 그의 장애학생들을 위한 주립특수학교도 있다. 장애아동들의 대다수는 중등과정에 진학한다.

스웨덴의 4개 지역에서는 일반 중등학교에 심한 지체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해 국가적으로 마련한 특별공간이 있다. 이것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시설들로서 필요에 따라 교육을 위한 지원을 보장한다. 정부지원금은 활동 지원을 위한 스웨덴 국립이사회를 통해 보조자에게 주어진다. 보조자를 지원하기 위한 이사회는 각 영역의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고 자신들의 상황을 개선시키는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관리하는 중앙기구이다. 보조자의 지원은 장애인이 사회교육원이나 대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중등교육 이후 어떠한 형태이거나 교육을 받는데 있어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리고 부담없이 지원된다.

사회교육원은 일반적인 스웨덴 국민들의 운동과 연결된 평생교육의 특별형태이다. 많은 사회교육원들은 기숙시설과 여러 모임과 문화활동을 위한 풍부한 기회를 제공하는 곳으로서 연구환경을 갖추고 있다. 많은 성인 장애인들은 여전히 기본적인 학력에 있어 격차가 있다. 그런 장애인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와 연구협회, 사회교육원들이 마련한 평생교육원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노동

‘모두를 위해 일한다’는 것은 스웨덴 노동 정책의 주요 목적이다.

그러나 최근 스웨덴에서 실업의 증가는 또한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근로현장에 대한 법령과 노동환경법을 포함하고 있는 건설계획법은 모든 범위에서 장애노동자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신체적인 환경과 작업과 관련된 여러 기구 등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장애인이 보다 쉽게 열린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고 어느 곳에서 이것이 불가능한 지를 알아내고 노동을 할 기회를 갖지 못한 이들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내는 많은 노동관련 제도들이 있다.

노동력평가, 직업재활과 작업지도들은 노동력기구에 의해 이뤄지는데 이곳의 여러 활동은 주 노동시장성의 일정 부분이다. 그 기구들은 최근에 재정활동이 분명하게 된 보다 분산된 기구들로 재구성되었다. 재정적 지원은 일반적으로 무역업체조합과 사업주 사이의 일반적인 협약에 따른 임금비율에 적용시켜 사업주가 장애인근로자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의 직업훈련은 업체내에 마련된 직업적응훈련에 결합시킬 수 있다. 재정지원은 장애인근로자들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개인적 조건에 맞도록 작업현장을 개선시키고 기술적 장치를 지원하거나 개인적인 보조자를 고용하는데 지급될 수도 있다.

재활과 의학적, 사회적 직업훈련은 장애인이 목적을 수행하여 가능한 한 빨리 고용될 수 있도록 비교적 단기간이나 일정 기간동안 이루어져야 한다. 이전에는 주정부의 소유였다가 최근에 일정 업체 형태를 갖춘 작업장들이 있는데 이것은 스웨덴에서는 모든 사업체들이 고용을 분담해야 한다. 이 그룹이 '샘홀 에이비'(Samhall AB)이다.

약 2만 8천여명의 장애인이 이러한 업체에 고용되어 있는데, 그 또한 확대된 지원서비스가 아니라 주로 생산직에 속해있다. 샘홀은 요구가 있을 때 마다 장애인노동자들의 기술을 개발시키는 중요한 작업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 기업은 스웨덴 경제와 산업의 한 일원으로서 기능하려고 한다. 정부는 샘홀이 고용할 수 있는 장애인노동자에게 일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에 대한 총시간을 결정했다. 작업결과는 물품판매와 제공된 서비스, 매년 스웨덴 정부와 국회에서 결정되는 주의 보수수준을 통해 지급된다. 장애인에게는 하루종일 혹은 어느 일정 시간동안을 보낼 수 있는 자치적인 보호센터가 있다.

문화와 레저

스웨덴에서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문화활동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표가 훨씬 이전인 74년에 국회에서 채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생활은 여전히 간신히 일반인들의 수준에 접근하고 있는 정도다. 이것은 접근할 수 있는 정보 뿐만 아니라 대중매체와 문학, 교육자료와 문화기관 그리고 각종 놀이문화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연구기관과 장애관련 기관과 협회 사이의 밀접한 협조체제는 장애인들이 문화 및 레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확대시켜왔다. 이러한 기회는 예를 들어 연구모임, 답사, 문화시설방문, 여행에 대한 특별한 관심증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이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

일반적으로 대형 레저시설이 있고 더욱이 도시에 바로 인접한 곳에 거대한 자연 그대로의 지역이 있는 스웨덴에는 여가를 위한 다양한 기회가 있다. 주정부는 장애인이 문화와 레저활동에 접근하는 것을 더 쉽게 하는 새로운 기법과 기술의 개발을 추구해왔다. 사회체육적 혹은 전문선수들이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잘 지어진 장애인스포츠시설이 있다.

주정부는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해 문헌을 점역 또는 녹음하여 제작에는 일도 지원하고 있다. 주립스웨덴점자녹음도서관은 다른 도서관들과의 협조 체계 속에서 시각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글을 읽는데 어려움이 있는 일반 사람들을 위해 점역도서들을 제공한다. 이 점자도서관은 매년 3천권 이상을 새롭게 녹음하여 비치하고, 4백여권을 점역하고 있다. 도서관은 문서를 원활하게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고등교육과정에 있을 경우를 대비해 연구논문들도 점역하고 있다.

방대한 사업계획 가운데 하나의 예는 장애인을 위해 신 민족대백과사전을 전자출판하는 것이다. 공공도서관은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화비디오프로그램과 매일 수화통역이 붙여진 문화 혹은 뉴스프로그램, 그리고 텔레비전 방송을 비치하고 있다. 주정부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신문제작도 지원한다. 다른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 특히 실어증환자와 난독증환자들 또한 녹음신문을 구독, 60개 이상의 일간신문이 카세트로 녹음 혹은 편집된다. 다가올

몇년내에 라디오의 뉴스들을 음성합성하는 방송기술이 지원기술개발에 투여될 것이다.

주정부는 또한 청각장애인 연극공연과 정신지체인 등 다른 이유 등으로 읽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다 더 쉽게 읽을 수 있는 형태의 책자를 제작하는 일도 지원하고 있다.

통신기기

스웨덴에는 대중교통에 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법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이것은 천천히 개선되고 있는데, 최근 얼마전부터 가속화되고 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욕구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노인들과 장애인을 위해 자치단체의 별도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택시나 특히 전철, 기차에 별도의 좌석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스웨덴에서 43만명에 달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은 이러한 형태의 지원을 받으며 이동을 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85%가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어떤 지방정부는 장애인을 위해 특별 서비스 노선의 형태를 제공하는 대중교통시설을 세웠다.

지방정부는 서로 그리고 모든 개인의 요구에 근거하여 그들 자신을 위한 정책을 펴기로 결정했는데 그 정부는 이 교통서비스와 서비스여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장애인들은 또한 비행기든 자동차든 대형버스든 상관없이 이동석의 가격으로 스웨덴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 부족분은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다. 게다가 자동차를 살 때도 주정부의 재정지원이 제공된다. 이 기회는 65세 이상의 장애인이나 장애인의 부모와 자녀들에게 주어진다. 현재까지 약 1만5천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봤다.

기술적 지원(재활공학)

활동적이고 독립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장애인은 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적 지원이 요구된다. 스웨덴장애연구소는 재활공학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작업과 이 분야를 개발하는 국립 수준의 기구이다. 보건의료지원법률에 따르면 국가기구는 장애인에게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기술지원을 위한 특별본부에서는 휠체어와 다른 보장구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에게는 시각센터가 있고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특수청각센터가 있다. 국가기구는 또한 통역센터를 통해 청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에게 통역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수화통역훈련은 주정부에 의해 기금이 지원된다.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은 재활용품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 훈련, 보수와 유지비용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서비스의 범위는 국가적 일부분의 차이로 인해 적절하게 다양화된다. 국가기구는 이러한 서비스의 대가로 주정부에 의해 보수를 받는다.

사회보장보험

의료적인 측면에서 생활보호를 받아야 하는 16세와 64세 사이의 사람들은 노령연금에 상당하는 장애(혹은 조기퇴직에 따른)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의 전제조건은 수령자의 노동능력이 적어도 25% 정도의 영구적인 손상을 입어야 한다. 1백%, 75%, 50% 혹은 25%씩 주어지는 연금은 노동능력이 얼마나 손상되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장애연금은 사회보험국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이 결정된다. 노동능력의 손상을 입은 사람은 영구적인 장애를 갖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일년내에 완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일시적인 질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진단에 따른 지원은 재해나 질환 때문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65세 이전에 장애를 입게 된 16세 이상의 사람에게 지급된다. 장애인정의 범위는 얼마나 많은 도움이 필요한가에 달려있다. 세금을 납부할 수 없고 스스로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 시설에서 보호한다. 시각·청각장애인은 항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호인정은 자녀가 16세 미만이며, 상당기간 동안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장애를 가진 부모들에게 지급된다. 이것은 보호에 대한 비용과 특별히 요구되는 비용에 대한 보상 모두를 포함한다. 이 보상은 세금이 부여된다.

◆ 부록 3

전세계 여성장애 관련 기관

이 글은 여성장애인문제에 대한 전세계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주기 위해 각국에 있는 장애 관련 기관들을 소개하는 것이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욕구들을 파악하여 그에 대한 대안과 서비스등을 제시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 편집자 주 -

1. 티엘지(TLG : Through the Looking Glass)

- 장애를 가진 부모를 위한 미국의 전문기관

“자신의 몸조차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없는 여성장애인이 어떻게 아이를 낳고 양육할 것인가?” 라는 의문과 편견에 대해 전문적인 연구와 상담 그리고 실제적인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 연구기관이 제4차 세계여성대회 비정부포럼에 참석해 전 세계의 여성장애인의 관심을 끌었다.

미국 브룩클린에 위치한 장애를 가진 부모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 티엘지(TLG : Through the Looking Glass)가 바로 그곳.

티엘지(TLG)는 미국 내에서 “장애인의 자립적인 삶을 위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1982년에 설립돼 부모나 자녀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장애인이 있는 가정을 위한 의료적, 지지적 서비스 제공과 관련 연구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는 기관이다.

특히 장애를 가진 부모를 위해 부모 역할에 필요한 정보 제공, 상담, 서

비스, 네트워크(Network)구성, 시각, 청각 여성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에 대한 연구와 서비스, 전문적인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자녀 돌보기에 유용한 기구 개발 등 독특한 활동을 하고 있다.

티엘지(TLG)에서는 장애를 가진 당사자의 관심, 경험, 의견 등을 가장 중요한 자료로 적극, 수용하고 있어 실질적이고 창조적인 연구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곳에서 발간한 “엄마 되기 : 여성장애인을 위한 임신과 출산 가이드 (Mother To Be : A Guide To Pregnancy and Birth for Women With Disabilities)”와 “부모 역할에 적합한 도구 : 아이디어 북 I (Adaptive Parenting Equipment : Idea Book I)”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경험과 의견 그리고 아이디어의 결과물이다.

자녀를 갖기를 원하는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의 가이드 북은 36명의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의 경험들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또한 자녀를 가질 것인가? 하는 결정에서부터 출산까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태아와 산모를 위한 영양, 임신을 위한 운동, 임신 기간의 몸의 변화, 그리고 제왕절개 시술법에 관한 자세한 안내 등 전문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비장애여성과 의사들에게도 매우 유용하다.

포럼장에서 만난 이 책의 저자 주디 로저(JUDITH ROGER)는 자신이 임신을 하였을 당시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에 관해 상담을 해 주는 사람이거나 참고할 책이 한권도 없었다고 말하면서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들과 임신과 출산에 관한 경험을 함께 나누고 싶어 책을 쓰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티엘지(TLG)에서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그녀는 “모든 장애 관련 연구와 서비스가 단지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누구도 장애아동이 곧 성인이 된다는 것을 생각치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장애를 가진 소녀를 위한 서비스는 곧 그 소녀가 엄마가 된다는 것

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는 장애인의 일생의 전체적인 시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 중 부모가 된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 연구 등이 우리 기관의 중요한 사업입니다.”라고 밝혔다.

또 하나의 책 “부모 역할에 적합한 도구 : 아이디어 북 1(Adaptive Parenting Equipment : Idea Book I)”은 장애를 가진 부모와 전문 연구진이 함께 만든 책이다. 이 책은 장애를 가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찾아내고 이러한 문제 해결에 유용한 기구를 만들어 사용법을 설명해 장애를 가진 부모의 자녀 양육을 돕는 아이디어 북이다. 이 책에서는 사진을 통해 장애를 가진 부모와 자녀를 위한 특별한 유모차, 목욕 장비, 기저귀를 채울 수 있는 테이블, 아이의 옷을 갈아 입히는 테이블, 침대, 우유병, 아이들이 놀다 어지럽혀 놓은 장난감을 장애를 가진 부모가 치우는데 겪는 어려움을 돕는 장비, 아이와 함께 놀 수 있는 놀이 기구, 휠체어를 탄 부모가 아이와 함께 산보하는 방법, 휠체어를 탄 채 밀수 있는 유모차 등, 매우 유용한 기구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에서 휠체어를 탄 아기 엄마인 한 여성장애인은 “이젠 아이와 함께 산보도 할 수 있고 이웃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용한 장비들이 저와 우리 아기를 자유롭게 해주고 있어요”라고 말한다.

또한 티엘지(TLG)에서는 이러한 유용한 장비들을 소개에 그치지 않고 개발, 보급함으로써 장애로 말미암아 자녀를 키우지 못할 것이라는 많은 우려와 편견을 적극적으로 해소시켜 가고 있으며 당사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 단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녀를 낳아 기르는 가장 기본적이고 인간적인 권리와 행복을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이 이 기관의 취지이다.

티엘지(TLG)에서는 이와 같은 정보와 소식을 무료 상담 전화(미국 내)와 팩스, 그리고 소식지(뉴스레터Newsletter) 등을 통해 원하는 누구에게나 제공하고 있다.

주소 : Through the Looking Glass, 2198 Sixth Street, Suite 100,
Berkeley, California 94710.
Tel: (800)644-2666(voice/TTY), or (510)848-1112.
Fax: (510)848-4445

2. 여성장애인에게 유용한 건강센터

(The Health Resource Center for Women with Disabilities)

-시카고 재활협회(Rehabilitation Institute of Chicago)

“복합적인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여성장애인들이 휠체어보다 2배나 높은 병원의 치료대와 일어서서 촬영해야 하는 유방 X선 조영 검사대에서 어떻게 편리하고 안전하게 의료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는가?”

미국 시카고 재활협회에 있는 “여성장애인에게 유용한 건강센터”는 많은 병원과 장애인 관련 의료진들에게 이러한 반문을 던진다.

특히 전신마비, 하반신마비, 반신불수 등 가장 의료 서비스가 절실한 여성장애인에게 가장 편리하고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병원 내의 시설물들의 이러한 실태는 여성장애인의 의료적 치료를 오히려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센터는 이러한 병원내의 여성장애인의 접근권에 관한 것 뿐 아니라 임신상담, 가족 계획, 부모 역할 지지 서비스, 유방 X선 사진 촬영 문의, 건강 상담, 심리 상담, 지원 그룹 등 여성장애인의 건강에 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복합적인 의료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여성장애인을 위해 신체적인, 정신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넓은 의미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한 팀으로 구성돼 여성장애인의 종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

다.

조산원, 산부인과 의사, 여성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간호사, 엄마가 된 여성장애인에게 아이를 양육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작업 치료사, 임신기간 중에 몸의 변화에 적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물리치료사,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의한 감정적 도움을 주는 심리치료사, 사회복지사들이 이러한 전문가들이다.

또한 이 센터에는 여성장애인들로만 구성된 “동료 자문 기구”가 있어 그들의 자문과 연구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실질적인 의료적 관점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

이 센터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여성장애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과 치료대와 의자를 구비하고 여성장애인에게 편리한 의료 서비스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의 건강을 위해 연구 논문, 워크숍, 비디오 상영, 1년에 4번 발간되는 소식지, 기관 신문 등을 통해 여성장애인에게 꾸준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별히 다른 병원의 의료진들이 여성장애인의 건강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는 이 센터의 역할은 많은 여성장애인의 건강과 의료적 서비스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3. 윈비저블

(WinVisible: Women with Visible and Invisible disabilities)

윈비저블(WinVisible)은 다양한 배경과 상황에 놓여 있는 흑인과 백인 여성 장애인들로 구성된 일반 대중적인 국제 연합체로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다. 이 곳은 여성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상담과 정보 그리고 도움들을

제공하며 장애인의 권리 쟁취를 위한 여러 가지 사회 운동을 하는 곳이다.

예를 들면 여성장애인의 재정적, 사회적 자립을 위한 캠페인, 시민권, 복지, 취업 운동을 한다. 그리고 주거환경, 교통시설, 건물, 통신수단, 기술 등의 접근권 확보, 여성장애인의 사회 통합적인 생활을 위한 자원 확보 운동을 하고 있다. 또한 장애 발생의 원인이 되는 인종차별, 강간, 핵 위험, 가난, 불량한 건강, 산업 재해, 그리고 다른 폭력들을 근절시키는 일들을 통해 여성장애인이 직면하고 있는 성적인 차별과 또 다른 차별들에 대항해 싸우고 있다.

윈비저블(WinVisible)은 여성장애인이 남성장애인들보다 더 차별받는 삶을 살고 있으며 아이를 낳고 기를수 있는 권리마저 빼앗기고 있다고 보고한다. 또한 강간을 비롯한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낮은 임금과 연령에 따른 심한 차별을 받고 있어 노인여성장애인은 그 중 더욱 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전한다.

윈비저블(WinVisible)은 국제적인 또는 국가적인 무임금으로 일하고 있는 여성을 위한 기구인 더블류에프에이치(WFH : International Wages for Housework Campaign)에 속해 있으며 벨지움,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와 가나, 인디아, 아일랜드, 필리핀, 일본, 스페인, 탄자니아, 영국, 미국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세계여성회의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윈비저블(WinVisible)은 1985년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3회 세계여성대회때는 농업, 요리, 양육, 집안 일 등과 같이 가치로 인정되지 않았던 여성의 일들을 각국의 정부가 경제적인 노동으로 인정하는 합의에 도달하도록 하는데 성공했다. 이번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는 제3회 세계여성회의 때의 유엔의 약속을 이행했는가 평가하고 2천년대의 여성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국가들이 보다 나은 노력을 약속하도록 국제적인 압력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군, 산업으로 인한 장애 발생,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열악한 불이익과 장

애인의 빈곤과의 관계, 장애와 폭력, 시설 종사자의 낮은 처우와 그들에 의한 시설내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육체적, 정서적인 폭력과의 관계 연구 등 여성과 장애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관련 서적 발행도 활발하다. 그리고 여성장애인과 이들을 돌보는 사람들 양 쪽의 실질적인 필요를 위한 기금 마련 캠페인, 장애를 발생시키는 반핵운동, 다른 국제적 반핵운동, 여성단체들과의 연대 활동 등도 벌이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장애인의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에 관한 권리 등 여성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운동 뿐 아니라 흑인여성의 암 발생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종적인 편견이 흑인여성의 암 발생율과 불평등한 의료적 치료에 얼마나 관여하고 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인종과 성차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전체적인 건강운동의 균형적인 시각을 제공하는데도 노력하고 있다.

윈비저블(WinVisible)의 주소 :

King's Cross Women's Centre PO Box 287 London NW 6 5QU

Tel 44 - 171-837 7509 voice and minicom/TDD

Fax : 44- 171-833 4817

4. 국제장애인원조기구 쉬아 (SHIA : Swedish Organization of Handicapped Aid Foundation)

쉬아(SHIA)는 1981년 유엔이 세계장애인의 해로 선정한 같은 해에 창립됐다. 오늘날 전세계의 30만회원을 가지고 있는 이 기구는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프리카 등의 18개국에 대한 15개의 발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국제 기구이다. 저개발도상국의 장애인들의 조직을 돕고 이러한 국가의 장애인들을 위한 발전적인 계획들을 함께 수행하는 것이 이 기구의 창립

목적이다.

쉬아(SHIA)는 전세계의 3/4의 국가를 개발도상국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나라의 불량한 영양 상태, 오염되어 가는 자연환경, 교육의 부족, 건강과 사회적인 부분에서의 결함 등이 질병과 장애발생의 심각한 원인임을 밝히면서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 기구는 여성장애인들은 여성, 장애, 빈곤이라는 3중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밝히면서 저개발 도상국의 여성장애인의 실태는 선진국보다 더 심각하다고 보고한다. 쉬아(SHIA)는 1991년 부터 이러한 나라들의 여성장애인의 상황에 대한 연구와 조사 그리고 이것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해 오고 있다. 이 기구에 연결된 전세계의 여성장애인 단체는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32여개 단체들이다.

주소 : BOX 4060

S - 102 61 Stockholm SWEDEN

Tel : +46(0)8-643-7380

Fax : +46(0)8-714-5922

◆ 부록 4 -각종 보고서

1. 쉬아(SHIA)의 개발도상국 여성장애인 실태조사 보고서

이 글은 쉬아의 특별위원회가 쉬아 소속의 32개 개도국 여성장애인이 직면하고 있는 일상생활을 조명해보기 위해 교육, 직업, 가정,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분석 정리한 것의 요약본이다. 빛장은 오는 4월 출판할 히든씨스터즈(Hidden Sisters)와 함께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전문을 소개할 예정이다. - 편집자 주 -

쉬아(SHIA)에 가입해 있는 나라들의 여성장애인이 안고 있는 두 가지의 문제는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한 의식 결여와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 나라에서는 장애여부를 떠나 남성에 비해 여성의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조직체에서나 사회에서의 영향력도 일반적으로 저조한 편이며 경제적 수입도 낮은 수준이다. 여러 사회에서 여성은 남자들의 소유물중 하나 또는 투자대상으로서 간주되어 네 개의 벽으로 둘러싸인 집안에만 머무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낙후된 나라들의 경우 여성의 불리한 처지는 더욱 심각하다. 이런 사회제도하에서 여성은 전적으로 쓸모 없는 존재로, 그래서 교육시킬 필요도 교육받을 가치도 없는 대상으로 낙인찍히고 말았다.

여성장애인일 경우 불리한 상황은 이보다 더 심각해진다.

바꾸어 말해서 여성장애인은 여성 또는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이중의 차별대우를 받으며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 그 결과 여성장애인들은 집안에 갇혀 사회로부터 격리되기 십상이고 교육받을 기회도 거의 없으며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여 살아가는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게 되는 것이다.

여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훌륭한 교육을 받고 투철한 자신감을 가져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여성들은 이 두 가지가 다 결여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이 사회에서 장애인이 교육받을 기회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 더구나 학령기의 여성장애인이 교육받을 기회는 이보다 훨씬 더 제약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장애아의 부모들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특수학교가 있을 경우 사내아이와는 달리 딸아이를 보내려 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한 가정에 있어 장애아의 탄생은 공포를 유발시킬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장애아들이 숨겨지거나 심지어 출생하자마자 죽임까지 당하는 것이다. 장애를 유전으로 오해하거나 전염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터에 장애인을 불행을 가져오거나 저주받은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UN이 선포한 '인간의 권리'도 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도 건강에 대한 배려나 사회적 서비스는 물론 현실적으로 전혀 쓸모 없는 미사여구에 그치고 있다.

이 경우 남성장애인에 비해 여성장애인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일례로 남성장애인의 경우 사회생활을 위해 싸워야 할 편견이 여성만큼 심각한 상태는 아니다. 남성장애인의 경우 가정을 이루기도 여성에 비해 쉬운 편이며 직업을 얻는 면에서도 훨씬 덜 심각하다. 남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들에게 자신감과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지니게 해주기 때문이다. 반면에 여성장애인이 스스로를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여성장애인은 아이를 기를 수도 가정을 책임질 수도 없다는 주위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 여성으로서의 존재가치마저도 상실해가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번 설문지 응답에 실린 내용이 바로 그 증거

가 되는 데 많은 여성장애인들이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잃어가고 있으며 그 결과 정신적으로나 행동 면에서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여성장애인 스스로가 누려야 할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마저도 주장할 용기와 자신감을 상실해 가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장애인에 대한 대중의식의 변화가 있어야만 여성장애인들의 정상적인 삶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태도와 편견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설문지 응답에 실린 내용 중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사실은 장애인단체 특히 여성분과의 존재의 중요성이다. 이는 여성단체가 존재하는 국가라 할 지라도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보와 관심이 극히 미미한 상태이며 이들 단체의 구성원 중 여성장애인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여성장애인의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장애인단체의 압력 또는 장애인을 대표하는 국제적 단체의 압력이 있어야만 한다. 또한 장애인단체의 여성분과들은 여성들에게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나눠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여성들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도록 협력체 활동을 활발히 전개시킴으로써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의 지위향상도 꾀하게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UN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여성장애인에 관한 보고서

- 히든 씨스터즈(HIDDEN SISTERS) -

제4차 세계여성대회와 비정부조직 포럼의 여성장애인 워크숍에서 아태지역의 여성장애인에 관한 "HIDDEN SISTERS(가려진 자매들)"이란 보고서가 발표되어 이 지역의 여성장애인의 차별과 소외가 심각함이 알려져 이에 대한 정부와 비정부 간의 노력이 촉구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아태지역의 여성장애인은 장애와 여성 그리고 빈곤이라는 3가지 범주의 차별 속에서 가장 가난한 계층으로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채 살아가고 있다. 또한 1989년 국제노동기구(ILO)의 연구 논문을 인용해 15세에서 44세의 아태지역의 여성들이 남성들 보다 다산과 출산 후의 불충분한 의료적 건강적 치료의 부족 그리고 영양불량 등으로 장애발생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덧붙이고 있다. 따라서 '빛장을 여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번역하고 번역내용에 대한 토론을 거쳐 내년 4월 즈음 출간할 예정이다. 특히 부록에는 아태장애인 10년의 행동 강령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아태지역 여성장애인에 대한 행동 강령 등을 담고 있다. - 편집자 주 -

아·태지역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태어나자마자 가정에서 부터 시작된다. 선천적 장애여아는 살해되거나 죽도록 방치되고 있다. 비록 살아 남는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가족의 정당한 일원으로 성원되지 못한 채 성장한다. 또한 사회적으로 재활 서비스, 교육, 취업 등의 기회 부족과 결혼 가능성의 희박 등의 현상과 맞물려 스스로 자립 할 수 없는 여성장애인은 결국 가족의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

농촌 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심각성은 더하다. 재활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부재와 낮은 문맹율은 여성장애인을 위한 공공 서비스

로의 접근을 가로막고 있으며 관습적인 편견은 여성장애인을 사회적으로 천한 계층으로 몰아가고 있다. 필리핀의 한 보고서는 필리핀 농촌 여성장애인 중 80센트 이상이 자립적으로 살지 못하고 남에게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으며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극소수의 여성장애인은 가혹한 저임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아태지역의 나라들이 여성장애인의 정확한 수치나 경제적, 사회적 상태에 대한 실태조사 마저 실시하고 있지 않아 여성장애인의 심각한 문제의 정도를 이해하는데는 아직도 많은 제한이 있다.

1976년의 세계보건기구(WHO)의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의 인구의 1/10을 장애인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최근의 한 연구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장애인의 비율은 5/10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어 이 중 절반이 여성장애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8억명 이상의 여성장애인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아·태 지역에서는 농촌보다도 산업화를 겪고 있는 도시에서 사고와 산업재해로 인해 장애발생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매일 2만3천2백명이 장애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또한 매일 1천4백명 이상의 여성이 장애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수치에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의 관심과 권리는 무시되고 있다. 심지어 지난 20년 동안 국제적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관심을 받으며 활발히 전개되어 온 여성 운동과 장애인의 자립 운동에서조차 여성장애인 운동은 소외되어 왔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장애인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아태장애인 10년(1993-2002) 행동강령에서조차 장애

인의 사회 속에서 조차 동등하지 못한 여성장애인의 권리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1994년 10월에 필리핀에서 열린 아태장애인 10년의 장애관련 단체들의 비정부 포럼에서 채택한 마닐라 선언(The Manila Declaration)을 기점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몇몇 나라들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또한 아태장애인 10년 행동 강령 이행 사항 검토를 위해 올해 6월 방콕에서 열린 아태지역 정부대표들의 만남에서도 아태지역의 많은 여성장애인 단체들의 협의 끝에 마련된 이 지역 여성장애인을 위한 행동 강령이 부가적으로 채택되었다.

또한 1994년 6월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여성들의 진보적 발전을 위한 행동 강령에 여성장애인에 대한 내용들이 첨가되었다. 이로 인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여성운동에서도 여성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지지도가 높아가고 있으며 여성 장애인 운동이 좀더 나은 미래를 위한 시발점에 서있다.

이 밖에도 낙인화된 여성장애인의 왜곡된 이미지, 가정과 재활 관련 기관에서 조차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심각한 폭력과 성폭력 실태, 여성장애인의 신체적, 건강적 문제에 적합한 의료와 재활 서비스의 부족, 통합 교육의 미비, 전통적이고 가내 수공업 차원을 넘지 못하는 직업 교육 내용, 낮은 고용 현황, 국가 발전에의 동등한 참여 등의 주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여성장애인의 권리

이 글은 스웨덴에 있는 국제장애인원조기구인 쉬아(SHIA)에서 결의한 여성장애인의 권리 선언이다. 우리나라 여성장애인이 확보해야 할 권리로 여겨져서 전문을 전제한다.

- 편집자 주 -

접근권

장애를 가진 여성들과 소녀들은 가게, 시장, 만남의 장소, 진료소, 도서관, 은행, 우체국, 여성을 위한 종합시설, 학교, 교통망, 보도, 목욕탕, 공중전화 등과 같은 공공시설을 손쉽게 사용하고 들어 갈 수 있어야 한다. 여성장애인의 활동을 제한하는 방해물들은 어디서든지 제거되어야 한다. 새로운 건축물은 경사로, 수평출입구, 리프트, 폭넓은 출입구, 충분한 회전공간, 점자 신호와 보조통신장치 등을 설치해 여성장애인이 방해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건축되어야 한다.

선택권

그녀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영역에서 여성장애인은 결핍없는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고 의사결정에 참여 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장애인이 지지적(?) 서비스를 요구할때, 그러한 서비스를 교부받을수 있는 장소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장애인은 친족관계, 성생활, 번식, 건강보호, 자기표현, 주거의 장소, 그리고 모든 일상의 결정에서 선택의 자유를 가져야 한다.

안전권

모든 인간은 폭력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다. 장애를 가진 여성들과 소녀들은 가정, 기관, 그리고 거리 등에서 자주 폭행을 당한다. 장애를 가진 여성들은 자기방어 훈련과 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기회를 통해 폭행과 학대와 부딪치어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형사 사법 제도는 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권리와 욕구를 인정해야 한다. 학대 당한 여성의 은신처, 강간위기관리센터 그리고 다른 피해 서비스는 여성장애인들이 잘 알 수 있고 가기 쉽게 되어 있어야만 한다.

힘(Power)권

여성장애인은 통솔력 개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 압력활동, 캠페인, 조직구성, 그리고 시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여성장애인은 공동질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정보와 정치적 과정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장애인의 시민권은 인종차별반대의 법률처럼 지켜져야만 한다. 장애를 가진 여성들과 소녀들은 많은 사회에서 그들을 위압하는 억압을 상대로 싸우기 위한 정치적 경제적 힘 모두를 필요로 한다.

노동권

여성장애인은 국민생산성에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만 하며, 의미 심장하고 유익한 일을 하여 알맞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가져야만 한다. 여성장애인은 고용의 기회를 갖기 위하여 성과 장애를 근거로 한 고용 차별대우에 맞서는 보장뿐 아니라 알맞은 교육과 훈련을 필요로 한다. 여성장애인의 출신과 사회적 신분에 의한 것 뿐 아니라 철저한 직업훈련과 같은 작업을 지지하는 보조가 필요하다. 또한 여성장애

인은 직업훈련에서 강력한 직업적 지지를 요구해도 좋다. 작업현장에서는 공업기술 또는 개인적 보조가 필수적이다. 건강한 경제와 공정한 사회에서는 이러한 보조는 타당하고 필요하다.

건강할 수 있는 권리

모든 여성과 마찬가지로, 장애를 가진 여성도 숙련되고 믿음직한 의료보호 서비스가 필요하다. 여성장애인은 가능한 모든 선택범위에서 여성장애인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접근가능하고 입수가 가능한 종합의료보호, 산부인과 서비스, 예방법등과 같은 전체적인 건강 보조가 필요로 한다. 의료전문기관은 여성장애인의 욕구를 알아야 하고, 여성장애인의 신체를 존중해야 하며, 여성장애인과 원활한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상담소와 의료기관들은 여성장애인의 건강에 대한 방해물을 없애야 한다. 장애를 가진 여성과 소녀들은 이러한 기관에 장애나 성별에 의한 편견없이 적절한 대우를 받으며 동등하게 출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가족권

여성장애인은 가족생활에서 딸로서,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파트너로서, 자매로, 아내로, 고모로서, 며느리로서 그리고 시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가질 수 있다. 여성장애인은 가족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완수하도록 지원되어야 하고 모든 가족 활동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아이를 낳거나, 양자를 들이거나 아이를 양육하기를 원하는 여성장애인은 그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때 필요하다면 특별한 훈련, 신체의 지원, 제정상의 보조 또는 다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장애를 가진 여성과 소녀들은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그들의 가족과 가정에서 살고 싶어할 것이다. 여성장애인은 그들의 가정을 창조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만 한다.

자조자립권

장애를 가진 여성과 소녀들은 시설 또는 다른 분리된 환경이 아닌 그들의 가정과 이웃에서 살아야한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공동사회의 태도와 자원 그리고 프로그램들은 여성장애인의 장애정도나 특성에 개의치 말고 여성장애인에게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여성으로서의 권리를 지원해야 한다. 사회는 접근하기에 알맞은 편한 주택건설, 숙련된 기술, 공업기술의 보조, 가정에서의 개인적인 보조 서비스, 그리고 소득 후원 등을 공급하고 증진해 여성장애인이 가능한 독립적인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부록 6

'빛장을 여는 사람들'의 활동 보고서

빛장을 여는 사람들의 설립 배경 및 목적

- 우리 사회의 여성장애인은 여성이면서 동시에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이중·삼중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여성장애인 문제는 여성계에서도 장애계에서도 논의의 영역에 놓여 있어, 실태파악은 물론 현황조차도 제대로 파악이 되고 있지 않아 여성장애인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아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 따라서 연구소는 여성장애인이 안고 있는 이중·삼중으로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문제를 끄집어내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대정부 혹은 대사회적인 활동 등을 하기 위해 여성장애인분과(일명 : 빛장을 여는 사람들)를 결성하고 빛장을 통해 여성장애인 스스로 권리를 찾아, 일어서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빛장을 여는 사람들의 활동 보고

(94년 12월 15일 - 95년 11월 28일)

가. 모임 결성

- 1994년 11월 14일 동아시아여성포럼 보고대회에 참석하여 여성장애인분과 설치

제안받음

- 여성장애인문제에 대한 연구와 활동방향 등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온 연구소는 여러차례 논의를 한 끝에 여성장애인분과를 설치하기로 함
- 1994년 12월 15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8주년 기념식이 열렸던 정립회관에서 김미연, 배복주, 권호예, 송지분, 박옥순 등 5명이 처음으로 모여 소규모의 결성식을 가짐

나. 초기 모임 진행 형태

- 1994년 12월 15일 이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본 연구소 회의실에서 모임을 가짐
- 초기에는 개인의 이야기들을 서로 기탄없이 털어놓는 모임을 가졌으며 여성학에 관한 세미나를 하면서 회원 확보

다. 모임 명칭

- 여성과 장애라는 이유로 이중고를 겪는 여성장애인이 대문 밖으로 나와 소외의 굴레를 하나하나 벗겨나간다는 주체적 의미의 '빛장을 여는 사람들(이하 빛장)'로 정함

라. 한국사회에서의 여성장애인문제와 해결책에 관한 공청회 개최

- 1995년 4월 7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강당에서 공청회 개최
-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여성장애인문제를 제기했다는 데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는 평가

- '한국사회의 여성장애인문제와 해결책'이라는 자료집 출판
- 여성장애인문제를 주제로 한 '빛장을 열어라'라는 슬라이드 상영

마. 분과 승인

- 공청회 개최를 계기로 연구소 여성장애인분과로 4월 승인
- 분과위원장 선임되지 않음(과제)

바. 여성장애인실태조사 실시

- 공청회에 앞서 여성장애인 121명을 대상으로 교육, 고용, 결혼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공청회에서 발표(결과는 자료집에 수록)

사. 빛장 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호프 개최

- 1995년 9월 북경세계여성대회를 앞두고 빛장 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호프를 방배동 랑데뷰호프에서 개최
- 총 130만원 수입 : 북경여성대회 참가자에게 활동비 120만원 중 80% 지원

아. 북경 세계여성대회 참가

- 북경에서 열린 세계여성대회에 김미연씨 참가
- 세계여성기구(UNDP)로부터 70만원 지원받음

자. 북경 세계여성대회 참가 후 보고대회

- 1995년 11월 2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연구소 강당에서 보고대회를 가질 예정

- 수집된 자료 번역 후 북경 세계여성대회 참가기와 함께 자료집을 마련하여 발간

차. 연구모임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연구모임 진행(11. 21일 현재 14명 회원)
- 95년 11월 현재 36차 연구모임 진행 중
- 공청회 진행
- 일일호프 진행
- 북경 세계여성대회 보고대회 진행
- 현재 HIDDEN SISTERS(숨겨진 여성들)이라는 책을 내년 4월 발간을 앞두고 번역하고 있으며 번역 과정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카. 정기모임

- 정기모임의 필요성
 - 매주 화요일 저녁시간에 갖는 연구모임은 성격상 연구모임인데다가 밤시간이고 이동의 어려움을 겪는 여성장애인의 참여가 저조해 낮시간을 이용한 정기모임을 마련함
- 정기모임 활동
 - 제 1차 정기모임
 - 일 시 : 10월 10일 오후 2시 - 5시까지(연구소 강당)
 - 참석자 : 총 9명
 - 활 동 : '가비의 기적'이라는 여성장애인의 일생을 다룬 영화를 함께 보고

그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자신의 얘기들을 풀어냈다

- 제 2차 정기모임

일 시 : 11월 7일 오후 12시 - 4시까지(연구소 강당)

참석자 : 총 11명

활 동 : '뮤리엘의 웨딩'이라는 영화를 보고 함께 보고 '결혼'이라는 주제로 토론

(매달 둘째주 화요일 오후 12시 - 4시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정기모임을 갖고 있음)